

제45회 파리에어쇼를 다녀와서

PARIS AIR SHOW

세계 항공기들이 모여 성능을 펼쳐 보인 경연장이자, 세계 최대 항공우주 부문 전시회인 '제45회 파리에어쇼'가 지난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공항에서 지난해보다 3개국 줄어든 38개국, 약 1,700여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에어쇼는 대부분 격년으로 개최되는데 세계적으로 그 수는 수백개에 이른다. 그러나 대부분이 레저스포츠 또는 초경량항공기 등의 야외 전시회이고 대형 실내전시와 첨단 항공기의 시범비행을 포함한 대규모의 주요 에어쇼는 20여개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단연 규모가 가장 큰 에어쇼는 파리에어쇼이다.

파리에어쇼는 1908년부터 개최되었으며, 처음에는 파리 한복판 전시장인 Grand Palais에서 시작되었으나 규모가 커지면서 1951년부터 르부르제 공항으로 옮겼다. 세계 최고 규모인 파리에어쇼는 홀수해, 영국의 판보로에어쇼는 짝수해로 번갈아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파리에어쇼는 1908년 처음 개최된 이래 45회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에어쇼는 계약액이 320억달러에 그쳐 2001년의 450억달러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전반적인 항공산업의 위기와 이라크 전쟁 후 악화된 미국-프랑스 관계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에어쇼답게 예년에 비해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행사로 치루어졌다.

이번 파리에어쇼는 약 1,700업체가 116,000sqm의 실내전시장과 192,000sqm의 야외전시장 전시에 참가하였으며, 총 226대의 항공기가 야외전시 및 시범·곡예 비행을 하였고, 전문관람객 12만명, 일반관람객 18만명에 달해 항공우주제품의 마케팅 및 정보교환의 장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한 행사였다.

특히 유럽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가 전통의 1위 기업인 미국의 보잉을 누르고 항공기 제조의 선두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어버스가 에미레이트 항공과 대한항공, 카타르 항공 등으로부터 총 200억달러 상당의 발주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해 경쟁사인 보잉을



15 - 22 June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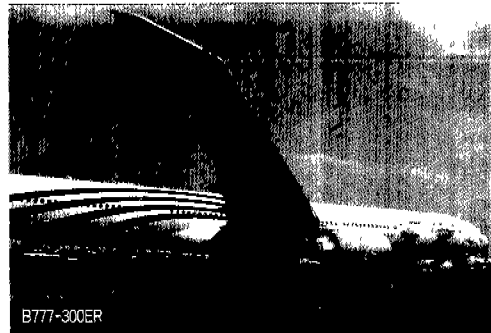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총무과 민선기 대리 |





▲ 5월 31일과 10월 31일로 퇴역할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기는 6월 14일 프레스데이에 르부르제 공항에 착륙하는 것으로 마지막 공식비행을 했다



B777-300ER

압도한 반면, 보잉은 대한항공과 15억달러 상당인 항공기 9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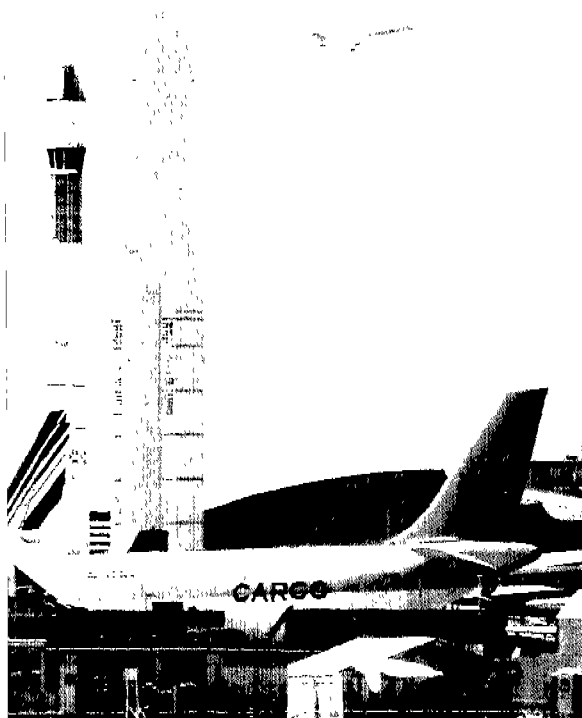
리서치와 제품개발 투자에 인색했던 보잉은 대조적으로 에어버스는 신제품 개발과 투자를 강화하였으며, 에어버스는 보잉보다 앞서 비행기 설계과정에 CAD·CAM을 도입했다. 또 에어버스는 A380을 개발하는데 23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등 최신기종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지만 보잉은 '95년 이후로는 신기종을 내놓지 못한 결과가 이번 에어쇼에 명암을 가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에어쇼의 또다른 성과는 러시아의 방산·항공업체인 수호이와 프랑스 엔진제조사인 스네크마, 유럽 방산업체 EADS, 프

랑스 방산업체인 다쏘가 협력협정을 맺은 것이라고 주최측은 평가했다.

행사 마지막날인 22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라팔과 미라지 전투기 등을 포함한 20여대의 항공기가 참가한 에어쇼가 펼쳐져 축제의 장을 마무리 하였다.

파리에어쇼를 참관하고 오면서 전시장이 상설화되어 있는 것에 부러움을 느끼며, 올해 부산에서 개최되는 코리아국제에어쇼 2003 행사도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꾸준한 발전, 국방수요 창출 등 직접적인 장점 이외에도 청명한 가을날씨 등 기후조건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많아 아시아권에서의 비교우위는 물론 세계적인 에어쇼로 발돋움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라팔의 화려한 시범비행



타이거



유로파이터 타이푼